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6월 교회 친교 안내
6월 첫째 주(6월 6일)에 Alley Pond Park에서 점심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예배(1부:10시, 2부:11시 30분)는 교회에서 드린 후에 오후 1시에 공원에서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 주일, 수요일, 토요일 예배 말씀 성령
주일 - 고린도후서
수요일 - 시편(시편 12편)
토요일 - 빌립보서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5/23		권이남		
05/30	최태신	배한우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7절 제목: 모든 위로의 하나님
기도제목: 1.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3.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1년 넘게 보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평안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감정적으로 우울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블루에서 레드로, 레드는 분노가 터지는 것입니다. 블랙은 분노의 단계를 지나 포기 단계입니다. 절망하는 단계입니다. 요즘들어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거친 말과 행동들 거리에 차들도 난폭한 차들이 평소보다 더 많아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7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표현이 모두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체험한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교회를 위로했던 모습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위로를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로에 관한 3가지입니다.

1. 모든 위로의 하나님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곁에, 가까이, 클레시스-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뜻은,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진정한 위로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2. 그리스도의 고난

위로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은 사도바울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하늘의 위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언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늘의 위로를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위로자의 사명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제 나와 같이 고난 속에 자들을 찾아가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위로가 정말 도움이 되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말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모양저 모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로서,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위로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 고난, 불행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다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시편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시편 12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임재(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7번 (시편 65편)	
찬 송 Hymn	393장(너 시험을 당해)	
기 도(Prayer)	1부: 김유순 권사 2부: 권이남 집사	
성 경 Scripture	고린도후서 1장 3~7절	
설 교 Message	모든 위로의 하나님	
▲ 찬 송 Hymn	513장(너희 마음에 슬픔이)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